

한국도자기 8천년 역사의 집대성

국내 첫 개설서 「韓國陶磁史」 펴낸 姜敬淑교수



우리나라 도자기의 8천년 역사를 조감한 「한국미술사」는, 강경숙 교수가 30여년 동안 우리 도자기에 기울여온 지극한 애정이 이뤄낸 결실이다. 도자사 분야의 연구업적을 모두 모아 현단계 연구수준을 가능해보고,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년여에 걸친 집필 끝에 국내 최초로 도자사 개설서를 펴낸 강경숙교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8천여년에 걸친 우리나라 도자기의 全史를 살핀 「韓國陶磁史」(一志社)가 나왔다. 서울산업대학 姜敬淑교수(48·교양학부 전임강사)가 3년여에 걸친 집필 끝에 펴낸 「한국도자사」는 이 방면의 첫 개설서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도자기에 대한 국내 미술사학계의 연구는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작업은 힘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었지요. 도자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설서가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부족하고 허술한 점이 많지만 이렇게 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흙이라면 누구나 청자와 백자로 대표되는 도자기를 빼놓지 않게 마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개설서가 출간됐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계와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도자사」의 발간은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원로 미술사학자인 金元龍박사는, “도자기의 전통이 오랜 나라이면서도 이제껏 제대로 된 通史가 없었다는 점에 항상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그동안 도자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업적들을 모두 모아 현단계의 연구수준을 가능해보고, 앞으로 더욱 좋은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국도자사」의 발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신들린 무당’처럼 전국 도요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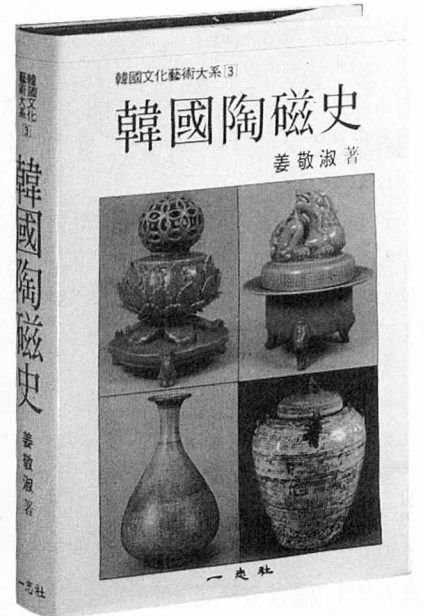
강경숙교수가 우리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0년대 초 이화여대 대학원 사학과에

재학하던 중 박물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부터였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서양사를 전공하던 그는 도자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닦으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은근한 아름다움을 새삼스레 발견하게 된다. “한국의 문화도 모르면서 서양사를 공부한다는 것에 커다란 한계를 느꼈다”고 강교수는 당시의 느낌을 털어놓는데, 이때의 일이 그로하여금 한국미술사로 전공을 바꾸도록 만들었으니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었던 모양이다.

“사실 그 당시에는 대학원에서도 한국미술사 강좌가 매우 드물었습니다. 金元龍, 秦弘燮, 崔淳雨 교수님들로부터 미술사를 배우기는 했지만, 도자사만을 전공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분청사기를 공부하던 저는 혼자 스스로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는 석사학위를 마친 후 1968년까지 박물관 연구원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후 8~9년 동안 학교를 떠나 가정생활에만 전념한 뒤 75년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면서 당시 자기연구에 복귀하게 된다. 자신이 학교를 떠나 있던 10여년 동안 분청사기 연구방면에서 이론적인 발전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그때 “이것이 신이 내게 부여한 과제인가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때부터 그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도요지를 ‘신들린 무당’처럼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주워온 옛 분청사기 파편들을 분류·분석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미 불혹의 나이를 넘겼고 두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서 쉽지 않은 일이었으나, 책이나 박물관에 진열돼 있는



도자기의 연구만으로는 생명력있는 논문을 쓸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해서 85년도에 박사학위논문이 완성됐고, 이는 「粉靑沙器研究」(一志社)라는 책으로 발간된다.

이 책을 낸 뒤 곧바로 「한국도자사」 집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미 머리 속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틀이 잡혀져 있어 1,200여매에 달하는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다만 5백여장의 도판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고 까다로웠다고.

역사의 줄기 속에서 도자예술 구명

「한국도자사」는 우리나라 도자기의 역사를 선사시대토기·삼국시대토기·통일신라시대토기·고려시대도자·조선시대도자로 시대구분하여, 각 시대의 도자가 어떤 특징을 지녔

좋은 편집인을 만나십시오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노량진 전철역 맞은편

※ 취업인력 정보실 ☎ 814-3387

엘리트 편집인 양성 교육기관
한국편집디자인센터
11) 812-1715-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한국편집디자인센터는 국내 출판·편집 산업과 엘리트 편집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전문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이론·실무 실습 위주의 교육과 출판·편집업계를 대상으로 취업추천, 출판분야 정보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번 본 센터에서는 정규반 수료생을 추천하고자 귀사에 일차 선별을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취업 구인 의뢰 급증!

※ 전공이나 경력을 고려하시면 그에 따른 소양인을 추천하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
엘리트 편집인 양성 목표!!

본 센터의 수료생을 채용해주신
출판사·잡지사 인사책임자에게
감사 드립니다.

으며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어떤 변화과정을 겪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도자사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각종 견해들을 한자리에 모아 비교검토를 가능케하고, 도자기 및 도요지의 실측도면, 도자사연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수록해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이 책의 특징이다.

강경숙교수가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陶는 政이라는 말과 같이 도자기는 곧 그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측면을 구명하는 지름길이다.”

그 예로 강교수는, 고려시대의 불교 및 여러 학문의 발전이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지닌 도자 공예를 가능케 했으며, 고려말 조선초에 걸친 정치불안, 신분층의 와해, 왜적의 침입 등으로 관요의 기능이 마비되자 기술자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통계에서 벗어남으로써 자유롭게 도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곧 활발하고 구김살없는 분청사기의 발전을 가져왔을 것으로 지적한다.

이렇게 우리 도자문화의 변천과정을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바라보며 시대별 특징을 파고드는 강교수의 접근은, 그의 학문적 출발이 역사학이라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미술사학이 보다 미학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미술을 역사의 한 부분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나의 접근은 다분히 역사학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역사학의 고증적 접근방법은 미술사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합

니다.” 그러나 강경숙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도자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잊지 않는다. 선사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토기를 다룬 부분은 내용이 비교적 허술한데 비해, 고려·조선시대 자기 부분은 개설서로선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난이도가 고르지 못한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중국·일본 도자기와 우리의 것을 비교 고찰하지 못한 점, 도자기 제작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와 원료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저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일반과 학계의 지속적 관심 절실

30여년을 도자사연구에 바쳐왔을만큼 강경숙교수의 우리도자기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다.

“세계적으로 도자기하면 으레히 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역시 명실상부한 도자기의 나라입니다. 일본 도자기의 발전에 미친 영향력은 이미 모두 다 아는 사실이구요. 우리 도자기의 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자연미와 인간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분청사기가 갖고 있는 소박하고 활달한 멋, 좌우대칭이 자로 잰듯 정확한 중국·일본 도자기에 비해 약간 이즈러져 있는 우리 도자기에선 친근감을 진하게 맛볼 수 있지요.”

그래서 도자기에 대한 일반의 반짝관심과 학계의 부족한 연구일손을 바라보는 강경숙교수의 심경은 더욱 아쉽기만 하다.

— 오애리 기자

화제의 책

국내외 아동문학 작가·작품 총망라

李在徹교수, 「세계아동문학사전」 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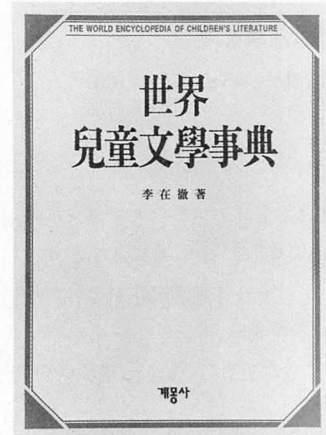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아동문학의 모든 것을 집대성한 「世界兒童文學事典」(계몽사)이 국내 최초로 발간됐다. 아동문학가 李在徹교수(단국대 국문과)가 약8년 동안의 작업 끝에 완성해냄으로써, 이제 일본과 독일에 이어 우리도 완전한 모습의 아동문학사전을 갖게 됐다.

특히, 아동문학이 문학으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문학의 한부분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세계아동문학사전」의 발간은 국내 아동문학연구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철교수는 “26년의 연구생활 동안 펴낸 10여권의 저서들은 사전편찬을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간 이 사전에 심혈을 기울여왔는데, 82년 위암선고를 받고 7년 동안 투병생활을 계속하면서도 기어코 원고지 8천여장에 이르는 방대한 작업을 완성해냈다.

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국내외 아동문학 작가들은 총 1455명. 국내작가 698명, 외국작가 766명이며, 922편(국내작품 732편, 외국작품 190편)에 달하는 작품들을 상세히 해설했고, 1751항목의 용어해설을 수록했다. 한편 국내외 작가와 관련된 사진 972매도 함께 수록돼 있다.

작가의 생애와 작품경향분석은 물론 별항을 두어 대표작의 상세한 줄거리를 실은 점이 특징으로, 이제까지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작품들을 상당수 소개하고 있



다. 이태올로기의 장벽을 넘어 동구 공산권은 물론 북한의 아동문학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월북 아동문학가 宋影을 비롯한 북한작가 6명을 수록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 나라별 아동문학사, 한국 아동문학가 연도별 등단일람표, 한국아동문학상 수상자일람표, 한국아동문학書誌, 세계 아동문학 연구문헌, 기원 전후부터 1988년까지를 조감한 세계아동문학사年表를 부록으로 덧붙여 아동문학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국의 유명 아동문학작가들을 비롯해, 88년도까지 등단한 국내 작가에 관한 최신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는 하나, 반면 아직 문학적 역량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신인작가들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세계아동문학사전」으로서의 무게가 떨어지는 감도 없지 않다.

계몽사 / B5 / 624면 / 30,000원

국내 최초의 전문편집인력양성!

편집디자인



- 출판**
- 단행본 ○ 전집류 ○ 잡지
 - 교양도서 ○ 참고서 ○ 사전류
 - 교과서
- 신문**
- 일간신문 ○ 주간신문 ○ 월간신문
- 잡지**
- 교양지 ○ 전문지 ○ 종합잡지
 - 정기간행물 ○ 사보

- 1기생 96% 취업확정
- 2기생 취업요청 쇄도

● 취업보도실 : 671-8317

미술디자인학원

☎ 672-1841, 672-1842

전철2호선 영등포구청역 문래동 방향 150m